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시청자위원회

참석

회사 : 대표이사,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콘텐츠센터장, 보도센터장

위원 : 강문식 위원장, 박성주 위원, 조애숙 위원, 천지연 위원, 나민수 위원, 안인수 위원,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김종은 위원, 박배연 위원, 이지호 위원

위원장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고 있음, 초록이 눈에 띄게 짙어지고 있음, 연중에 지금 날씨가 제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함. 실록의 계절을 만끽하시길 바람. 위원회 참여의 좋은점은 각계 다양한 곳에 속해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함. 새로 모신 두 분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위해 다 같이 노력하길 바람.

대표이사

그 동안 안타깝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함. 좋은 계절에 귀한 두 분을 새롭게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함. 시청자 위원회에 다양성이 추가 돼 기대하고 있음.

콘텐츠센터장

정규프로그램 제작 지속, 3월 트로트클라쓰 공개홀 녹화 진행, 4월에는 마지막주 강화도 시장, 프랑스 마을에서 녹화예정. 특집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시작. 방문진, 한국전파진흥원 공모 당선작 위주로 착수, 지자체 보조금 사업 특집으로 기획 준비중(섬마을 여행사 시즌2준비), 섬특집 2부작 제작 중, 지역MBC 공동제작 한국의 둘레길(금오도 둘레길 제작), 지역·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푸른 공의 연대, ai협력 프로그램 제작 시작, 라디오 특집 - 1948 여순사건 당시 여성들의 채록 관련 순천대 연구소 광장신문 협업에서 특집 제작 시작.

콘텐츠의 꽃이 피다 순천시 애니메이션 도시 특집 다음주 전국방송으로 편성돼 방송 예정. 방문진 지역사 아카이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 지원 준비, 여순사건 아날로그 자료 디지털로 전환하여 아카이브로 영구보존 지원서 작성 준비 중

5월 특집 제작 지속, 관광시즌 돌아오고 있음 여수, 고흥 관광특집 제작하여 5월말 방송 예정 이전회의 의견 반영 부분 관련 계엄, 탄핵 국면 소상공인 위기 관련하여 라디오전망대 소상공인, 자영업 위기, 전남도 대책에 대해서 제시, 기후위기 관련 대형산불 등 미래재난에 대한 대비 필요하다는 의견 관련하여 재난예방캠페인 수시송출, 사찰문화재 등 화재 대비 필요, 섬박람회 관련 기획 필요 관련하여 섬박람회 다규, 섬마을여행사(6부작 제작 예정, 5월 말 방송 목표) 등 프로그램 준비, 산단위기 관련 라전에 기자 출연하여 취재기 들어보는 시간 가짐, 여순사건 지속적인 관심 필요 관련하여 라디오 특집 기획 준비, 여순사건 관련 자료 디지털화 준비

보도센터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탄핵 후 대선정국 관련하여 리포트 제작, 여수산단 위기 관련하여 울산 석휴화학단지 직접 방문하여 위기극복하는 모습에 대하여 취재하여 배울점 알아봄, 남해안 향고래 방문 관련 환경뉴스, 고흥 농어촌 살아가기 유행 관련 2호점 개점, 여수 장군도 뱃길 복원, 보이스피싱 피해 문제, 도립미술관 강종열 작가전, 전남드래곤즈 관련 내용 취재 보

도 실시. 토크쇼 뉴스앤이슈 순천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관련 토론 내용 제작 이번주 주말 방송 예정.

5월은 6월 대선 앞둔 지역정가, 순천대 개교90주년 관련 취재, 버려진 섬을 보물섬으로 바꾼 사례 관련 특집 기획보도 제작 시작(섬박람회를 앞두고 작은 섬, 잘 알려지지 않은 섬 중 개발의 여지, 관광 관련한 섬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는지 취재하여 시리즈로 제작 예정)

지역 대형 축제, 순천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 유치, 농어촌 식료품 가게 부재로 인한 식품 사막 문제와 도시까지 나와야하는 지역민의 불편함 취재, 21세기 석유화학의 위기 특집 제작 지속.

방송사업센터장

섬진강 꽃길마라톤 4월 13일 무사히 잘 마침, 올해 6,400명 참가하여 진행. 태풍 수준의 비바람으로 문제가 있었으나, 큰 문제없이 진행. 청춘·낭만버스킹 개막~10월 25일, 낭만버스킹 매 주 금토 4개의 지역에서 버스킹 진행, 청춘 버스킹 매 주 토요일 4개의 지역에서 개최예정. 5월 거북선 축제 개최 예정 여수MBC 행사 대행, 뮤지컬 명성왕후 7월 공연 예정, 예매 오픈, 정채봉문학상 공모 준비 중

위원장

문화행사, 사회행사 등 많이 발굴하여 지역과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함.

김종은 위원

4월9~10 울산 사헌 프로젝트, 울산 시청, sk사회공헌활동, 폐선부지 견학 실시 관련 보도 잘 담겨서 좋았음. 사헌프로젝트 개요와 미치는 영향, 사택 재개발 문제, 폐선부지 재활용, 지역 공무원들의 대처, 의식수준에 대하여 보고 왔음. 공무원들의 대응 문제 차이가 컸음. 직접 파견을 와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음. 르포 형태로 기사가 끝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취재 필요하다고 생각함. 산업용 전기 5년 만에 82% 상승하였음.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산업용전기 인상 보류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다뤄줄길 바람.

박경숙 위원

AI 동화책 특집 어떤식으로 풀어질지 궁금함. 농촌, 기후위기, 농촌 재생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농촌 발전계획 수립, 에너지 전략 관련 교육 등 민주시민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 사회 문제 공동으로 대응 하는게 중요 교육, 토론 관련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필요.

콘텐츠센터장

당신의동화책ai 특집프로그램은 외롭고 고독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치유의 방법으로 순수하게 쓰여진 동화책이 위로가 될 것인데 감성ai가 읽어주는 것으로 기획하였고 이러한 방향으로 제작하려고 준비.

박소정 위원

여천석유화학 위기 관련 보도 관련 정부의 대책 부재, 지역국회의원은 문제 지적만 하고 있음. 국회의원의 역할은 중요하나, 지역 국회의원의 경제와 직결된 문제 관련하여 얼마나 관심

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지 역할을 요구하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순천·여수 등 관내 지자체 소나무재선충 방제 예산 반납, 교부세 감소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 증가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자체의 인터뷰 담아내는 것이 필요함.

여순사건 관련 여순사건 역사 조명에 여수MBC에 큰 역할 인정, 특별법 이후 우후죽순으로 등장한 목소리로 인해 사건 진상규명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음. 여수MBC에서 잘 준비해서 특집하기를 기대함.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관련하여 대전정국에서 대선후보가 우리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 필요. 지역민은 대선후보에게 어떤 점을 바라고 있는지 대선을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한 취재 필요. 이것과 관련하여 전라남도TF에서 전라남도 공약75건 만들어 건의한 것 이와 관련하여 보도 방향을 잘 잡아야함

여순사건을 겪은 지역과 겪지 않은 지역과의 정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큰 어른이 없음. 지역의 큰 어른 사례에 대한 발굴이 필요함.

노인복지정책은 많으나, 노인 스마트폰 사용 보이스피싱 관련한 문자가 무분별하게 오고 대책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취재 필요.

2025년 주요 취재 목표가 있다면 일회성 보도가 그 주제를 가지고 1년 간 취재가 나오길 바람.

전남도립미술관과 여수MBC과 같이 홍보가 필요. 버스승강장 부재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있음.

안인수 위원

재난상황 관련 보도 적절함. 우리 지역에 맞는 재난예방캠페인이 필요. 노인, 도서지역, 외국인 근로자 언어문제 등 이러한 상황에 맞는 캠페인 필요.

나민수 위원

위기대응지역 지정 관련하여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임. 정확한 상황 인지 필요. 여수시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사항 취재 및 보도 요청

천지연 위원

AI 교육관련 판단의 전문성 문제, 자료의 오류 문제가 있으나 학생들의 의존 문제가 심함. AI 이용에 대한 금기시하는 문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 교육적인 측면에서 기획이 필요, 섬 문화 관련하여 생태적으로 보전된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임. 외국 전문가와 같이 이러한 부분을 주목하여 세계화 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필요.

지산학연캠퍼스 관련하여 지자체의 성향과 학교와의 관계로 인해 진행의 성패가 달렸음. 이러한 내용을 취재할 때 실무자 측의 활동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균형 있는 취재 필요.

조애숙 위원

성공적인 섬박람회를 위해 꾸준한 관심 필요. 기후위기, 환경문제(가뭄, 홍수 등) 관련 교육 등 매우 중요함. 공익 광고 형태를 활용하여 환경문제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박성주 위원

사택 재개발 관련, 언론과 지역 시민, 소통의 부재문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괴리가 있어 갈등이 반복이 되고 있음. 소통이 자리가 있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

광주전남신재생에너지 - 허가 불가문제 관련하여 광주전남을 하나로 묶어서 지역의 전기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보도가 필요